

현민 여러분께

에히메현 지사 나카무라 도키히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에히메현 BA.5 대책 강화 선언' 에 대해서

에히메현에서는 7월 중순 이후,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5 로의 우세종 전환이 진행되어 확진자가 급증해, 어제 검사에서 역대 최다인 2,841 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감염 확산에 따라, 입원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병상 사용률이 50%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어 금일 기준 61.3%로, 보건·의료 부담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며,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분, 조기 치료가 필요한 분을 위한 대응이 집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히 향후 여름 행사 및 오본(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 귀성 등에 따른 도도부현을 넘는 이동 및 사람 간의 접촉 기회 증가와 함께, 에히메현내에서도 BA.5 변이 우세종 전환으로, 감염이 한층 더 확산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에히메현은 보건·의료의 붕괴 방지와 감염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들을 지키기 위해, 금일 '에히메현 BA.5 대책 강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기간:2022년 8월 9일(화)~8월 31일(수))

이 선언은 현재 '특별 경계 기간'에 있어, BA.5 변이에 의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며, 에히메현에서는 '보건·의료의 붕괴 방지'를 위해 다음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증상에 따른 적절한 진료 방법

- 증상이 가벼운 경우, 휴일·야간에 무리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고, 우려된다면 평일 낮 시간에 방문하여 진료받기
- 양성이 확정된 자택요양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 시 의료 상담 센터에 연락
- 긴급한 경우에는 구급차를 이용하기

### ○무증상자의 자율요양신고 시스템 도입 (8월 10일 예정)

- 무료 검사 등으로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증상의 경우, 무리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고 자율요양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요양하기(자율요양) (직장 등에 제출할 때, 활용 가능한 '신고증'을 메일로 회신)

○퍼스트 터치 (의료 기관의 양성 진단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다음날까지 확진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상황을 청취)

의 대상자를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에게 중점화

- (※)중점 관찰 대상자 등
- 65 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화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임신 중인 분
  -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분

또한, 중증화 위험이 낮은 분은 SMS(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자율요양 중 유의 사항을 전달하는 것 외에 역학 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갖추어진 보건소부터 전환)

※양성 연락을 받고 3 일이 지나도 SMS 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거주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민 여러분께서는 지금도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무에 힘쓰고 계신 보건소 직원 및 의료 현장 분들을 떠올리며, ‘에히메현 BA.5대책 강화 선언’에 따른 요청 내용을 철저히 지키시어,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요청 드리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 규칙 강화 (다음의 2 가지를 추가)

- 여름휴가로 귀성한 친구나 평소 만나지 않는 친척과의 회식은 사전에 무료 검사를 활용하여 특별히 주의한다.
- 직장 등 가까운 범위에서 확진자가 발견된 경우, 가벼운 접촉이라도 만약을 위하여 회식에 참가하지 않는다.

○여름 행사 (여름 축제, 불꽃축제 등) 대책 철저·강화

- 행사 참가 시, 감염 예방 행동을 철저히한다.

○현민 여러분께 요청

- 불필요한 진료 자제 요청
- 백신 접종 촉진(부모-자녀 동반접종, 예약이 불필요한 접종, 야간 접종 등을 활용)
- 감염 대책을 철저히(특히 회식, 행사, 지역 스포츠·문화 활동의 대책 강화에 협력)
- 고령자의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동거 가족의 경우, 혼잡한 장소로의 출입을 피하는 등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 귀성하여 고령의 친족들과 만나는 경우, 귀성 전에 음성인지 확인하기
- 방재의 관점도 포함하여 사흘치의 물이나 식량, 상비약을 비축하기

이상으로 다방면에 걸친 요청을 드렸습시다만, 지금까지처럼 ‘ALL EHIME’ 로 다같이 힘을 모아 몇 번이고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 제 7 차 유행도 현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